

# 북한 신형미사일 종이 여러 겹 발라 만든 가짜 가능성



북한이 지난 15일 평양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신형 이동미사일. 미국의 미사일 과학자는 촬영된 미사일 6기의 동체 표면에 있는 전선용 관(duct)의 설치 장소(빨간색 원 안)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이 미사일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을 고정하는 벨트의 위치에도 차이가 있으며, 재질 역시 통상의 미사일 같지 않고 종이를 여러 겹 바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양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전문가 주장 ... 오미우리 보도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신형 이동미사일이 종이로 만든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일본 오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우려하는 과학자 동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이동미사일이 종이를

미사일을 분해 만든 모형이 아니고, 실물 미사일도 아니다"라며 "새로운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도 22일 "북한이 발사 실험에 성공하지도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6개나 생산해 실전배치했다고 공개한 것은 군사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난 15일 열병식 때 공개된 북한 ICBM에 대해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조품 비행기를 만들어 (미국의 정찰위성에 촬영되도록) 비행장에 놔두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이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위성사진에 나온 무기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가려내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 15일 열병식 등장한 6기 사진 비교 전선 관 위치도 미사일마다 달라

## "발사 실험 않고 실전배치했다니"

## 한국 국방부도 가짜 의혹 제기

여러 겹 발라 만든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전했다. 라이트는 행사에 초청받은 취재진이 촬영한 미사일 6기의 선명한 사진을 비교한 결과 동체 표면에 늘어진 전선용 관(duct)의 설치 장소와 미사일을 고정하는 벨트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 진짜 미사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미사일이라면 규격이 같아야 하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질감이 보통 미사일의 재질처럼 보이지 않고 종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라이트는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실제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 회사가 북한의 신형 이동미사일 수송 특수 차량의 부품을 판매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중국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중국 회사가 차량 전체가 아니라 차대만 수출했다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관리는 또 로이터에 "이 회사는 차대가 민간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부품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욕 타임스(NYT)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회사가 특수 운반 차량 제작 업체인 후베이 산장(湖北三江)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 사이버 명문을 만드는 세계적 교수진



**홍동현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

### 교수 초빙

학과 (정년트랙)	전공분야 (대학원 설치 예정)	초빙인원
MBA	경영학	1
외식MBA	외식경영, 창업경영, 프랜차이즈경영	2

- 지원기간 2012.4.16(월) ~ 4.30(월)
- E-mail 접수 faculty@sjcu.ac.kr
- 문의 02)2204-8038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sjcu.ac.kr>)

---

### 신·편입생 모집

I. 지원기간 2012.6.18(월) ~ 7.19(목)  
II. 모집학과

계열	학과
인문사회계열	영어학과 / 상담심리학과 / 사회복지학과 / 노인복지학과 / 아동복지학과 / 경영학과 / 유통물류학과 / 금융경영학과 / 회계·세무학과 /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 패션비즈니스학과 / 부동산경제중개학과 / 부동산개발투자학과 / 부동산경영학과 / 호텔관광경영학과 / 조리산업경영학과
IT·디자인계열	정보통신학과 / 정보보호학과 / 모바일소프트웨어학과 / 게임영상콘텐츠학과 / 만화애니메이션학과

III. 문의 02)2204-8000  
※ 상세 모집전형 및 인원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sjcu.ac.kr>)

### 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석사과정 모집

- 지원기간 2012.5.14(월) ~ 6.4(월)
- 문의 02)2204-8600
- ※ 상세 모집전형 및 인원은 홈페이지 참조(<http://graduate.sjcu.ac.kr>)



# 세종 CYBER 대학교

## 중앙일보 광고 스캔해 응모했을 뿐인데

## '큐팟코드' 1등 2680만원 당첨됐어요

### 55세 오원상씨 "아들 대학 등록금에"

중앙일보의 신개념 광고 '큐팟코드'가 두 번째 당첨자를 배출했다. 첫 번째 당첨자가 나온 지 21일, 광고를 처음 적용한 지 6주 만이다. 행운의 주인공인 회사원 오원상(55·서울 천왕동)씨는 22일 중앙일보를 방문해 상금 2680만여원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 3월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뜻밖에 행운이 찾아왔다"며 "아들이 12월 제대해 복학하면 대학 등록금에 보탬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큐팟코드'의 두 번째 1등 당첨자인 오원상(55)씨가 22일 당첨금을 받아 들며 웃고 있다. 최승식 기자


큐팟코드는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광고 속의 QR코드(흑백 격자 무늬 패턴의 정사각형 모양의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동으로 실행되는 광고 영상을 보고 추천에 응모하는 새로운 형식의 광고다. 일반 QR코드와 달리 아래에 'Q Pot'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큐팟코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응모하는 데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추천 응모 방식도 간단하다. 광고 영상을 본 뒤 로또처럼 숫자 6개를 선택하거나 스마트폰을 흔들어 자동으로 배정받으면 된다. 광고를 한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상금을 마련한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나눔 로또'의 당첨번호와 같은 번호로 응모한 사람이 당첨된다. 광고당 5000명

만 응모할 수 있으며, 한 단말기로 같은 광고에 중복 응모할 수 없다.

당첨자 오씨는 하루치 신문 전체에 실린 모든 큐팟코드를 스캔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오씨는 "큐팟을 하다 보니 무심코 지나쳤던 광고를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다"며 "단순히 광고를 보고 응모했을 뿐인데 당첨금을 받게 되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오씨 외에 지난주 2등 3명이 각 20만원, 3등 351명이 각 1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큐팟 관계자는 "점점 응모자 수가 많아지고 있어 1등 당첨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당신에게도 큐팟코드 행운이 ... 오늘은 19, 25, 30, 35, 39, E2, E5, E6면


채널 15 하이라이트
채널·프로그램 안내는 02-751-6000

<p>PM 8:45 <b>월화 미니시리즈 '해피엔딩'</b> 첫 회. 열혈기자 김두수(최민수)는 국장(맹상훈)과 신경전을 벌이며 하루를 시작한다. 두수가 타고 가던 취재차량 안에서는 아내 선아(심혜진)가 보낸 라디오 사연이 흘러나온다. 추억에 젖는 것도 잠시, 오늘도 지구대에 잡혀 있는 큰딸 금하(소유진)의 전화를 받고 차를 돌리는데...</p> <p style="text-align: right;">〈관계기사 28면〉</p>	<p>AM 9:40 <b>박경림의 오! 해피데이</b> 트로트 가수 김혜연이 선배 가수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연을 털어놓았다. 가수 한혜진은 짝사랑 상대와의 리브스토리를 공개한다.</p>	<p>PM 8:05 <b>일일시트콤 '청담동 살아요'</b></p> <p>밤 10시 메인뉴스 시대를 연 <b>JTBC 뉴스 10</b></p>
---	---	---

이 로고가 표시된 중앙일보 사진을 스캔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촬영하면 JTBC의 뉴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